‘그림 상납’ 說만 무성…실체 있나

국세청판 ‘옷 로비 사건’ 거래 은밀해 입증 어려워

한 청장 “만난 적도 그림 준 적도 없다”…진실 공방

한상률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술계에서는 또 그림 상납설에 휘말려 미술시장에 대한 인식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랑가에서는 예전부터 권력을 둘러싼 그림 상납설이 종종 불거졌다. 그러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1970년대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이 터지면 권부의 실세인 A씨의 집에서 혹은 B씨의 별장에서 추사 김정희, 고려 청자 등 수백점의 골동품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으레 돌았다. 물론 그런 골동품 중 어떤 것이 뇌물로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수십년간 인사동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했던 한 미술통은 “당시 진위 확인에 참여했으나 대부분 가짜이거나 허접한 작품인 경우가 많았다”며 “실체가 없이 끝나곤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이런 사례는 간간이 불거졌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동아그룹을 상대로 제기됐던 ‘옷로비’와 함께 불거진 ‘그림로비’ 사건 역시 말만 많았지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채 흐지부지 끝났다.

뇌물이나 각종 비리 사건에서 현금과 함께 그림이 전달됐던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딱히 대표적인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물’이라는 포장을 씌워 워낙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는데다가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상류층이 재산의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미술판에 대한 일반의 왜곡된 시선과 오해도 그림 상납설이 나오는 배경이라는게 화랑가의 인식이다.

고양 아람미술관 정준모 전시감독은 “되돌려 생각해봐도 실체가 드러난 대형 그림 로비 사건은 없었다”며 “그림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현금 봉투를 끼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주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전군표(55) 전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 시절 한상률 현 청장(당시 차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된 최욱경(1940~1985) 화가의 고가 그림인 ‘학동마을’ 역시 현재로서는 ‘상납’의 진실이 명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 이모(50)씨는 “2007년 한상률 국세청 차장 부부와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한 차장 내외로부터 선물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 청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군표 전 청장 부부와 우리 부부 4명만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라인이 이번 그림 상납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 국세청장에 ‘주의’ 통보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연말 지방에서 경북 포항지역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청장이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한나라당 K모 의원을 비롯해 포항지역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핵 보유국에 北 또 포함

국방부 연례보고서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명시한데 이어 최근 국방부의 다른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비공식 인정받고 있는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미 국방부 ‘핵무기 관리 리뷰 태스크포스(의장 제임스 슐레진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복수의 핵무기 뿐만아니라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시스템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핵확산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감축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인들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핵을 얻으려는 다양한 동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핵확산을 체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방부 보고서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맥락에서 거론함에 따라 미 국방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비공식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여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만 평가, 미국 정부와 상당한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가자 지구 전투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료들을 맞으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구경 하자” 가자 접경 인파 북적

하마스 로켓탄 공격 시달리던 이스라엘인들

망원경·카메라 등 챙겨 소풍 가듯 ‘전쟁구경’

평화시엔 사람들이 소풍을 오거나 뛰어난 경관을 구경하러 오는 이스라엘 남부도시 스데로트 인근의 ‘파라쉬 언덕’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과정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작년 12월 이스라엘의 공격개시 이후 언제부턴가 복수심에 불타거나 호기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방송기자들까지 파라쉬 언덕을 찾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3일 전했다.

이들은 쌍안경과 줌 렌즈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불을 뿜으며 가자지구 상공으로 날아가 미사일을 쏟아붓는 장면들을 감상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파라쉬 언덕은 이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 사이에 ‘부끄러운 언덕’(Hill of Shame)으로 불리고 있다.

방문객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측의 공격으로 인해 복수심을 갖게 된 경우.

12일 아내와 함께 파라쉬 언덕을 찾아 이스라엘측 공격을 지켜보던 라피 트위토는 “하마스가 폭격당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하지만 가자지구내 여성와 어린이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니 슬프다”고 말했다.

11개월전 하마스측 로켓탄 공격으로 9살난 아들이 다리를 잃었다는 그의 아내 아이리스는 “가자지구 어린이들도 자라면 테러리스트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매우 일찍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무기 쥐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을 찍으러 파라쉬 언덕을 찾았다는 유대교 열성신자 데이비드 쿠닌(26)은 지난주 하마스측 로켓탄 공격으로 아쉬도드에 있는 자택 창문들이 박살났다며 “이스라엘측 공격을 보니 속이 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고한 가자지구 시민들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들이 하마스에 협력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20년전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왔다는 타냐 잘츠만(44.여·교사)은 지난 3월 하마스측 공격으로 학생 한명이 숨졌다며 “하마스는 테러조직으로 (공격 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에란 살레브(27)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